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651.1385
거제 055.682.4950
경주 054.772.8141
고양 031.919.4040
광명 02.895.1966
광양 061.762.0012
광주 062.524.3511
김해 055.332.6000

다
대구 053.652.0070
대전 042.254.3035
동해 033.531.3007

마
마산 055.246.8746
목포 061.242.1611

바
부산 051.441.2221
부천 032.668.9700

사
사천 055.833.2344
서귀포 064.762.1400

서울 02.3705.6000
서천 041.951.6400
성남 031.708.2503
세종 041.865.0872
속초 033.635.3523
수원 031.252.5111
순천 061.744.7990

아
안동 054.854.5482
안산 031.483.6536
안양 031.455.2700
양산 055.367.1144
여수 061.654.2161

울산 052.247.3520
원주 033.742.6090
의정부 031.853.6332
익산 063.857.8910
인천 032.424.0524

자
전주 063.224.5501
제주 064.711.8322
제천 043.646.6009
진주 055.755.3463
진해 055.542.0020

차
창원 055.283.9488

천안 041.575.0961
청주 043.265.3700
춘천 033.254.4878
충주 043.848.3240

타
통영 055.646.2547

파
파주 031.945.5998
평택 031.651.7701
포항 054.274.4444

하
하남 031.793.7771

※ 조치원Y가 세종Y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2012 Vol. 491 06 June
YWCA





Cover Story

“고리원전 폐쇄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기도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평화기
 도회를 열었다. 생명파괴의 응집체인 핵발전소 앞에서 생명살림과 평화세상을
 향한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의 시간을 만들었다.

Contents

2012 Vol.491 **06**

- 03 90주년 특별기고 ● 일상의 가치를 이루는 Y운동 | 유성희
- 04 YWCA 역사읽기 ● YWCA 대화이야기 | 황혜숙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① 2012YWCA 전국회원대회-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 들여다보기
 ● ② 제16회 YWCA 회원들이 직접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 09 Y-정책 | Y돌봄 연구소 ●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과 시민단체의 대응 | 최영미
- 11 | Y돌봄 현장 ●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돌봄정의를 말하다 | 김성숙
- 13 새로 시작하는 YWCA 운동
- 14 YWCA와 사회 ● ① 창조질서 보전을 향한 발걸음 | 신선
 ● ②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 오진아
- 18 체험, Y현장 ● ‘그들’이 ‘우리’가 되는 이곳, 전북하나센터 | 김지영
- 20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즐거운 소통, 행복한 메아리 YWCA 인터넷 방송국 3기 아나운서
- 22 북한을 만나다 ● 민화협을 통한 북한 지원 이야기 | 안정희
- 24 평화포럼 ● 청소년의 평화, YWCA가 할 일은 무엇인가? | 평화나눔팀
- 25 월레아침기도회 ●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장윤재
- 26 YWCA 활동가 하령희 ● Revival/ 2012YWCA 활동가 하령희
- 27 연합회 소식
- 28 회원YWCA 소식
- 35 탈원전 국제교류 하코다테 액션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

제48권 제5호 통권 491호 2012년 6월 29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지경애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요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매회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가치를 이루는 Y운동



글 | 유성희(연합회 사무총장)

Y의 90년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을 키운 역사라 할 수 있다.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 “YWCA는 사람이다”는 말씀들을 들으며 자랐고, 앞으로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선으로 이야기된다.

Y에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무급으로 투자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보람을 얻는 자원활동가들이 있고, 전문적 실무영역에서 자원지도자의 활동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배분하고,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집행하는 실무활동가가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실무활동가의 수가 2,500명을 넘었고,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원지도자의 숫자도 3,000여명에 이른다. 회비회원의 숫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쯤 되면 한국의 웬만한 기업과도 맞먹을 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고,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든든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Y에서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Y의 모습은 Y의 활동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생태의 가치가 내면화된 사람의 모습은 매사에 생태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안고 사는 사람은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갈 것이다. 가치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가치는 주입을 받아서는 내면화되기 어렵다.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 아름다움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가꾸는 것이 성장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가치는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자신이 관계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에 대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노력이다.

기독교운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온전함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행복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Y는 나와 우리 가족, 동료들, 회원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일상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운동이다. 생명의 가치를 공동의 아름다움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사랑 공동체,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Y를 다시 보자. Y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의 공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다. 수단적인 조직들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한다. 마치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잘 팔리도록 포장하는 것과 같이 운동의 방식과 내용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사람’의 조직은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스스로 찾고 이루도록 돕는다. 우리의 회원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을 제공받아야 한다. 참다운 가치를 개발하고 행하도록 이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도구적, 수단적으로 동원하려는 회원은 서로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다. 한번은 회원이 되지만 지속적인 활동은 하지 못한다. 기능적으로 관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 활동가의 가치를 전파하는 과정이 다름 아닌 회원운동이다.

이제 우리 서로의 가치를 세우자.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전하자. 기독교인의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운동 전선에 나가자. Y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도 좋다. 그것은 Y가 외부로 보여주는 건물의 웅장함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큰 가치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이 미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에 있다.

YWCA 대회이야기

글 | 황혜숙(연합회 위원, 전 실행위원)



1926년 하령회

1922년 4월 북경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회의에 기독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김활란, 김필레는 귀국 후보 교회에서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때의 느낌과 배움이 이후 Y에서 개최하는 하령회나 모든 대회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 YWCA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비전제시와 조직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력을 더하였다. 초기 YWCA 총회는 1년에 한번 하령회와 함께 열렸는데, 연합위원회가 주관하였고 각 지방 및 학생대표들의 보고와 토의로 이루어졌다.

최초의 하령회는 1922년 3월27일에 열린 1차 발기회와 4월20일에 있었던 제2차 발기회 이후 6월12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3차 발기회와 함께 열렸다. 제1회 Y하령회에는 전국의 고등여학교 대표와 각종 여성단체 대표, 일반 사회지도자들이 초청되었으며 “세계여성들의 책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여성들에게 그들의 이상을 세계로 돌려야 한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강의의 대부분은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의 고취가 근간을 이루었고 이는 참가자들에게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때의 하령회도 지금의 전국대회처럼 당시의 사회이슈를 주제로 삼아 진행되었는데 공창폐지, 문맹퇴치, 애국운동과 경제생활과 관련된 물산장려, 여성의 지위와 자질향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의의식 개발과 생활개선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927년부터는 YM/YWCA 합동으로 전국 남녀기독교학생 하령회를 열었다. 매년 열리는 남녀 학생 하령회는 그때마다 참가자 수를 제한해야 할 만큼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가 있었다. 하령회는 기도와 예배, 총회뿐 아니라 배움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높은 지식과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 하령회에 초청된 강사는 조만식, 이상재를 비롯하여 애국지사, 대(大)학자,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새로운 사회과학 지식 전달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불어일으키는 강연으로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 주었다. 남녀기독교학생 하령회는 1933년 7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1949년에 다시 개최되어 당시 대학사회의 한구심적 역할을 하였고 1950년대의 기독교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리를 차지하였다.

1941년 일제의 압박 이후 해방 후 한국Y 재건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국대회와 하령회를 다시 개최(1947년 8월12일-20일)함으로써 Y운동의 재건을 도모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한 실무자 양성, 위원 선출, 회원Y 재건 등 산적한 문제들을 토의·결의함으로써 YWCA 조직 강화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총회와 하령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또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안목과 단체훈련, 민주주의적 회의진행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1948년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제15회 임시 전국대회에서 매년 열던 전국대회를 2년마다 열기로 현장을 개정하였고 전국대회와 함께 개최해온 하령회를 분리시켰는데, 이는 학생 기독교운동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학생Y는 대학생Y와 Y-틴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Y-틴은 1954년을 시작으로 전국Y-틴 하령회를 연합회 전국대회가 열릴 때마다 별도로 열었다. 부산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온 연합회는 1954년 제18회 전국대회를 서울Y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12개 지방Y, 대학Y, Y-틴 등 정식·방청대표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고 Y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체로 발전시켜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후에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은 계속해서 전국대회 중점운동으로 채택되어 혼인신고 강조운동, 축첩공무원 추방운동 등을 벌였으며 이외에도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 학생운동, Y회관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주로 논의된 내용들이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으로 숨가쁜 변혁을 거친 Y운동은 그동안의 회관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1964년 제22회 대회부터 3년에 한번씩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3년 단위 전국대회는 2009년 대회까지 45년 동안 이어졌는데, 빠른 시대변화에 따라 Y도 사업내용을 좀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시키려면 2년마다 대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결의에 따라, 다시 2년 대회로 전환되었다. 이때의 큰 변화는 대회 참가자와 내용의 변화이다. 2009년 이전까지 YWCA에서 전국대회란 중점사업을 결정하고 현장을 개정하며 실행위원과 공천위원을 선출하는 사무회의와 각 회원Y 회원 간의 유대·결속을 다지며 신앙과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교육과 친교를 통합한 축제의 장이었다. 따라서 참가자로 전국 회원Y의 이사, 위원, 실무자, 대학생, Y-틴까지 정식대표와 방청대표 약 1천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니만큼,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분과마다 철저히 준비를 하여 항상 Y 전국대회는 빈틈없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새로운 비전제시로 참가한 회원Y 대표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제 다시 2년 대회로 변화하면서 대회 기간도 줄이고(1박2

일) 내용은 프로그램 중점 채택 외에 사무회의, 선거 등의 행정 위주로 진행되며, 참가자 수도 대폭 줄여 정식대표만으로 압축된 대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회에서 빠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대회와 전국대회 사이에 2년마다 회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금년 2012년 8월18일 4,500여 명 규모의 YWCA 전국회원대회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전국대회에 참가했던 회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여성회원, 기능회원 등 모든 회원들이 모여 돌봄과 나눔으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Y의 모습을 확인하며 격려하는 다짐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회원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1972년 창립 50주년 기념 회원대회였는데, 그때 회원대회에서는 Y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50년 후 창립 100주년을 기해 찾을 수 있도록 250,000원을 적립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81년, 1987년, 1992년(창립 70주년 기념), 1999년에 회원대회가 열렸으며 전국대회나 회원대회 외에도 지역대회라는 이름으로 중부, 영남, 호남으로 나뉘어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위의 대회들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전국 회원들이 한뜻으로 모여 결의를 다지고 실천지침을 채택한 대회 중에는 1977년에 소비자 의식을 주제로 한 한국Y 소비자 전국대회를 ‘소비자 운동은 인권운동이다’는 주제로 개최하여 소비자 의식 고취와 운동의 방향을 재정립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여 바른 삶을 실천하자는 각성운동으로 바른 삶 실천대회(1990.5.23-28)를 개최했는데, 지금은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나바다’라는 단어를 Y가 처음으로 탄생시킨 대회이기도하다. 또한 이제는 방대한 전국조직이 된 Y 기능인 회원만을 위해서 1994년과 1996년에 전국 여성 기능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여성 기능인 회원들에게 결속력을 다지고 큰 힘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항상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새 문화를 열어온 한국YWCA 운동이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회원’에 있다. 전국의 회원들이 대회를 통해 함께 모여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노래할 때 YWCA는 생명력 있는 무성한 잎을 피우게 될 것이다. 

2012 YWCA 전국회원대회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 들여다보기

8월 18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2 YWCA 전국회원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전국의 YWCA 회원 약 4,5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감격스러운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 회원Y 회원대회 운영팀과 연합회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연합회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는 4개 분과(홍보, 모금, 자원봉사, 생활 및 사무분과)로 나누어 실무활동가와 연합회 전문위원들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YWCA 회원들의 '만남'을 기대하며 모든 회원들과 그날의 감동을 나누기 위해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회의 발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홍보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 실행위원 | 이은영(팀장), 원영희, 정유진, 문경란 실무자 | 이남희, 최수산나, 이주영, 조은선, 정서연

✓홍보분과는 이런 일을 합니다!

YWCA 회원대회의 의미와 내용을 알리고 YWCA의 인지도와 호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를 아우르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YWCA 운동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YWCA 전국회원대회 홍보전략

- 게릴라 홍보전(6월 28일(목) 경기지역위원회)
- 게릴라 홍보전 참여 인증샷 홈페이지에 올리기 이벤트 실시
- 회원대회 홍보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퍼뜨리기 온라인 이벤트실시
- 뉴스매체, YWCA블로그(blog.naver.com/ywcamail.do), 페이스북(www.facebook.com/ywca Korea), 정론지, 인터넷방송국을 통한 홍보

✓마음을 다지며 기대합니다!

- YWCA가 9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인 점을 외부에 알리고 싶습니다.
- 참여한 회원들이 YWCA 공동체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YWCA 회원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회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금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 실행위원 | 이명혜(팀장), 함희경, 강교자, 문권희, 문복희, 이종임, 임유진, 정진자, 최숙자, 문미란 실무자 | 임진영, 윤수정, 손은하

✓모금분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전국회원대회는 회원들 만남의 장이자 축제의 장인만큼, Y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운영하려고 한다. 넘쳐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풍성한 전국대회를 위하여 전국회원대회의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요청한다.

✓모금방안 기획

- 내부후원금 - 연합회 실행위원, 후원회 이사, 복지사업단 이사, 실무활동가들에게 자발적 후원요청 (7월 말까지)
- 기업후원요청 - 매일유업 등 YWCA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공문 요청 및 광고 찬조를 통한 후원금 요청

- 예우방안 : 전국회원대회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편지, 행사 자료집에 후원자 명단(로그) 게재,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한국YWCA)에 명단 게재,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전국회원대회 후원 문의(연합회 회계부서)

✓마음을 다지며 기대합니다!

- 전국회원대회의 모금이나 후원참여를 통해서 나부터 먼저 실천수범하겠습니다.
- 100주년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며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 실행위원 | 백해진(팀장), 김은경, 한미미, 이순덕, 정동신, 최성령 실무자 | 조영미, 고은희, 김지혜, 김찬빈, 최윤영, 최지혜

✓자원봉사분과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자원봉사분과는 회원들을 기쁘게 맞고, 회원들이 함께 축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과이다.
- 전국 참가자들의 안내와 청소년운동의 전시 기획과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청·춘·여·찬- 나눔, 섬김, 살림의 가장 핵심적이며 우리 운동의 지속성과 생명력을 잘 살려내는 "준"을 부각하여 4,5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젊음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마음을 다지며 기대합니다!

- 90년간의 역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성,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기대와 바람들을 전국 모든 회원들과 나누고 더해지는 그런 전국회원대회를 꿈꿉니다.
- 삼각산 맑은 샘에 봉사의 때를 매고선 우리들! 사나운 비바람 불어와도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파이팅입니다. 우리 여자기독청년회니깐!
- 90년 간 이어진 YWCA의 위업! 한국의 여성을 위해서 YWCA는 90년간 달려왔음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Y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하길!

생활 및 사무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 실행위원 | 최형선(팀장), 한영수, 김기동, 임희옥, 곽지영, 김명희, 유도희, 김경희 실무자 | 안정희, 박미선, 박진화, 박효정, 신인숙, 이혜련, 최윤미

✓생활 및 사무분과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회원대회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처리와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 참가자 접수에서부터 등록, 자리배치, 간식 및 의료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편, 회원Y와 연합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한 자원봉사자와 실무자, 돌보미회원들에 대한 사상을 진행한다.

✓마음을 다지며 기대합니다!

-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과정과 당일 진행에 만전을 기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 YWCA 회원들이 회원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고 Y에서 함께 해 온 시간들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상식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절한 진행으로 회원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뽑은 제16회 YWCA 좋은 TV 프로그램 상



'제16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 '2012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열린다. 이번 좋은 TV 프로그램 추천과 선정과정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YWCA 회원들이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 한 달 간 총 33편의 프로그램 추천을 받아, 좋은 TV 전문심사위원단의 2차에 걸친 전문심사로 '여성', '평화', '청년·청소년' 각 부문에서 각 두 편씩 총 6편의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이 여섯 편 가운데 좋은 TV 회원 심사단의 투표로 대상과 부문별 상이 선정된다. 6월 말까지 좋은 TV 회원 심사단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7월 초 전문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18일 '2012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 부문

- **여성 부문** -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분야,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한 프로그램
- **평화 부문** - 갈등 해결 및 통합에 이바지하고, 이웃과의 나눔, 섬김, 살림정신을 잘 표현한 프로그램
- **청년·청소년 부문** - 건강한 청년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청년·청소년 상을 제시한 프로그램

부문 후보작

- **휴먼다큐-엄마의 고백(MBC)**
기획: 정성후 | 연출: 이모현 | 작가: 고혜림
- '미혼모'라는 이름표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가치를 담아냄
- **시사기획 인사이드- '전원공급 중단사태, 침묵의 원전' (울산방송)** 연출: 김태훈
- '친환경, 경제적' 에너지라고 알려진 원자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함
- **특집 다큐멘터리 '사투리의 눈물' (MBC경남)**
연출: 최만철 | 작가: 서진주
- 사투리를 차별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꼬집고 청소년에게 어른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를 조명함
- **아침 TV 소설 복희누나(KBS)**
연출: 문영진 | 극본: 이금림
- 복희라는 인물이 가진 건전한 가치와 삶에 기울이는 치열한 노력을 담음
- **SBS스페셜 2부작 '기적의 하모니' (SBS)**
연출: 최정호 | 작가: 한영숙
- 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이 합창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림
- **신년특집 SBS스페셜 3부작 '만사소통' (SBS)**
연출: 정철원 | 글·구성: 이진주
- 한국사회의 화두인 '소통(疏通)'의 의미를 참신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함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과 시민단체의 대응

글 | 최영미(전국실업단체연대 정책위원장)

0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나라마다 개념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장된 개념으로서 정부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로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로서 사회복지분야(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 보건의료분야(간병·간호 등), 교육분야(방과후활동·특수교육 등), 문화분야(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와 '공공재적 서비스'로서 일반행정, 환경, 안전분야를 들고 있다.¹

이러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설치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을 중심으로 대인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핵가족화,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일반 국민의 서비스수요를 대폭 확대시켰다. 둘째, 지속적인 고실업은 일자리 창출을 전국가적 핵심 과제로 등장시켰고 2004년부터는 정

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사회적일자리'라는 용어는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와 뒤섞여 쓰이다가 2007-2010년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한다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발표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통일되기에 이른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된다는 성격, 곧 비용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02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

이렇게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지만 실행과정에서 과도한 시장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 일자리의 낮은 질로 인한 고용불안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우려되던 바였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2006년도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보면, 우리 사회에 부족한 약 9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으로서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곧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확충, 취약계층대상바우처 도입을 통해 상층의 민간시장을 확대

1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보고회 자료집, 2006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며, 이를 위한 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경쟁 도입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MB정부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대신 외국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입과 같은 '서비스산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화, 경쟁 촉진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익히 아다시피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도하게 서비스의 주체를 민간화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질적 수준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에서 민간시설은 포화상태인 반면 국공립시설은 대기자가 밀려있다. 2009년 아동수 기준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이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역시 민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유명 고객과 같은 부정수급, 근로조건 악화가 일상적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투자가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 7천명에서 17만 5천명으로 순증분분이 8천명에 불과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포함해봤자 1만 명이 되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미약한 정부의 투자는 사회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우처 일자리를 보면 월평균소득 60-70만

원(시급 6,000원 내외)이며 특히 산모바우처의 경우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

03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와 연동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로서 시민사회의 기대와 지지를 받아온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위에서 보듯이 현재 기로에 놓여있다. 서비스 공급을 지금처럼 민간의 무한경쟁에 맡겨야 할 것인가?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사회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이 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대폭 확대, 가사간병 재가보육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의 강화, 아동 방과후활동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공공, 비영리 서비스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임금을 비롯한 적정 근로조건을 설계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수행단체의 역할을 병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양자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곧 자체의 일자리사업단위는 분리하여 '공익적 기업'으로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하고 모단체는 정부를 감시하며 '우리 사업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구YWCA와 대구극동방송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돌봄정의를 말하다

글 | 김성숙(대구YWCA사회적기업위원회 위원장)
*방송자료취합(대구YWCA 이미지영 국장)



YWCA가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돌봄정의, 나눔평화, 청년리더십을 주제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때, 대구Y는 지역 사회에 우리의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극동방송과 함께 새로운 방송코너를 만들었다.

세상은 많이 혼란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성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다. 여성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시작점이다. 여성들이 깨어 있으면 그사회는 희망이 있다. 대구Y와 대구극동방송은 여성이 우리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면서 여성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 내용으로는 한국YWCA의 정책인 돌봄정의, 나눔평화, 청년리더십과 생명살림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10시~10시 30분간 총 6개월 동안 각각 다른 영역의 운동들을 소개하게 된다.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YWCA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을 우리지역사회에 알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YWCA 생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일

념으로 시작된 방송은 이제 대구Y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다. YWCA 목적문처럼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오늘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행복한 여성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첫째 주 내용은 돌봄정의를 주제로 진행한다.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워킹맘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너무나 낮아 적절한 근로임금과 근로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다. YWCA는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가치 실현과 법제화를 위해 돌보미 회원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하여 돌봄노동에 종사하시는 돌보미 회원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YWCA 돌보미 회원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부분 경력단절 상태에서 일을 찾게 되는데 일을 통해 존재의 소중함을 받

견하게 되고, 돌봄노동의 보람을 느낀다. 방송으로 나
간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산모들의 입을 통하여 너무도 유명해진 YWCA에서 산
모와 아기를 보살피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새 생명을 통하여 육신의 피곤함보다는 기쁨을 더 느끼
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음식
을 너무도 맛있게 먹으며 꼭 레시피를 적어달라는 산모,
육조에 담긴 채 두 다리를 쪽쪽 뻗으며 너무도 평안한 표
정으로 있는 아가를 볼 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
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며 또 이 일을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발벗고 나서는 이때에 돌봄 직업을
갖게 되어 너무나 자신이 뿌듯하고 또 새로운 눈을 뜨
게 해서 많은 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에게 아기들을 맡기고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시던 분들
께도 감사합니다. Y회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면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지금 이 일을 천직으
로 알고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만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앞으
로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돌보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돌보미 회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하나같이 자
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YWCA 돌보미 회원들이 어떻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돌봄노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가지며, 두 번째 방송은 사회적기업간병단
간병사들을 초대하여 다른 단체와 차별화 된 대구

YWCA 간병단의 특징을 들어보았다.
마인드교육, 간병사 생일 축하, 자녀 격려, 모범간병사
표창 등 많은 부분을 들 수 있고 그중에서도 목사님의
간병사 멘토링을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하였다. 간병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목사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저
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이 열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힘들었던 마음에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느껴요. 정말 신기해요.”

“사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극동방송을 통해 돌보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
며 우리Y가 꿈꾸며 나아가는 돌봄정의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으로 정의”를 부르짖으
며, 한국YWCA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법적·제도적 마련을
위해 정책제안은 강하게, 사회적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
해서는 부드럽게 운동을 해야 하겠다.

한국YWCA가 돌봄으로 정의를 외치는 것은 돌봄노동
에 종사하는 9만 명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다. 우리 돌보미 회원들의 아픔을 들어주
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기도로 어루만져주는 것, 그리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돌봄정
의를 함께 노래하는 우리 한국YWCA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봄으로 정의를 이루며 이 시대 우리에게 돌
보라 보내주신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새터민 등을 안
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이다. 돌봄정의는 “나”라는 여
성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
션이다! “돌봄 정의”를 꿈꾸며 오늘도 YWCA는 힘차게
달린다. 

2012년 지구시민지원활동 프로젝트 '인도의 마을에서 여성의 행복을 외치다'

자원활동 청년들이 인도에서 2개월 동안 보건, 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 파견국가 : 인도 2개 마을 (Guwahati와 Bangalore)
- 파견인원 : 인도 2개 마을 2개 팀 10명 (Guwahati 5명, Bangalore 5명)
- 내용
 - 지구시민지원활동가 '도스트' 교육과 워크숍(7월 중순~9월초/2달간)
 - 인도마을 현지활동(9월 중순~11월초/2달간)
 - 한국-인도 지구시민지원활동가 현지 합동 리더십 교육과 워크숍
 - 마을 청소년 배움터'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 교육', 건강 보건 캠프와 워크숍
 - 마을 축제
 - 평가와 보고, 후속활동
- 후원 : 외환은행 나눔재단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의미있는 혼인예식모형을 개발·보급하고, 건강한 결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YWCA 여성운동

- 대상 : 청년여성 및 부모, 예비부부, 미혼남녀, 일반인 등
- 기간 : 2012.6.1~11.30

● 내용

미혼자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대하는 마음가짐 (결혼의 철학) • 결혼의 의미와 결혼식 기획

부모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 • 결혼후 부모의 마음가짐

- 캠페인 : 허례허식의 혼례관행 타파를 위한 캠페인 실시(총3회) - 성남YWCA
- 수기공모 및 시상식
 - 양성평등, 가족가치확산, 일·가정 양립, 허례허식 타파한 결혼을 직접 경험했거나 참여한 사례
- 수기집제작
 - 수기집제작 및 배포를 통한 양성평등, 가족가치확산, 일·가정 양립, 허례허식 타파한 결혼문화정착운동
- 후원 : 여성가족부

“고리원전 폐쇄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다녀와서 창조질서 보전을 향한 발걸음

글 | 신 선(연합회 영상팀 위원)

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평화운동으로 "핵 없이 평화로운 생명세상"을 향하는 모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개인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조그만 관심은 공동체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30분,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행했던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평화기도회”에 Y연합회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평화기도회는 한국YWCA와 함께 YMCA, NCCK,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연대활동으로 4월23일에 출범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부산 기독교시민연대와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90주년을 맞은 한국Y가 평화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심도 높은 주제가기에 연합회와 중부지역과 부산Y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기독교여성들의 핵 없는 평화세상에 대한 갈망과 염원을 여실히 드러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평화기도회는 1부에서 YMCA, YWCA 대표의 환영인사와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고, 2부는 각자가 준비해 온 십자가에 기도문을 적어서 주최 측이 마련한 대형 십자가를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개인 십자가를 장식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어서 하선규 부회장(부산Y)과 윤혜숙 위원장(한교연)의 기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의 성서적 증언에 방인성 목사(하나누리 대표), 시대적 증언에 김준한 대표(반핵부산대책위), 연대와 일치의 증언으로 김정욱 교수, 김혜정 공동집행위원장이 발표하였고, 시낭송에 박철 목사(부산 좋은나교회), 김경호 목사의 하모니카연주, 방영식 대표의 노래와 부산Y 브라스밴드의 연주 등으로 평화의 세상을 몸짓으로 증언했다. “2012년 환경주일 한국교회 탈핵선언”문을 발표하고 차선각 목사(YMCA 이사장)의 마침인사와 기도, 유성희 사무총장

(YWCA)의 참가자 소개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계속해서 3부는 핵발전소 정문 앞까지 10분 정도 걸어가 십자가 행진을 하였다. 부산Y 브라스밴드 연주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삼거리에 위치한 핵발전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등글게 원으로 둘러서서 현수막과 대형 십자가를 세우고, 개인별 십자가를 진열한 후 무릎 꿇고 다같이 통성기도, 대표기도를 드린 후에 구호삼창을 외치고, 이날의 평화기도회 순서를 마쳤다. 구름을 가린 듯 하다가 다시 태양이 나타나는 맑고 푸르른 하늘이 참 아름다운 날이었다. 고리 핵발전소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놓은 널찍한 야외무대에서 약 200여명이 가졌던 3시간 여 동안의 평화기도회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든 시간이었다. 평화의 세상으로, 안전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길은 구름기둥이 그림고 육체적 고난을 견뎌야 하는 순례의 길이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원전 1호기의 폐쇄를 외치며 노래 부르며 행진하는 우리 일행들의 걸음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제단을 꾸며서 통성 기도하는 현장을 막아내는 핵발전소 주변의 경호 경찰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갈등이었다. 생명의 평화를 위해 같이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다. 오히려 고리원전핵발전소가 “함께 기도하자!”, “국민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 일이 생명 길이다!”를 외치며 손을 잡아주고, 가까이 중단을 선언해야 하지 않는가? 이 순례의 길에서 Y연합회 김 형 부회장은 한국 그리스도인



● 평화 염원을 담은 십자가




● 핵발전소 정문 앞까지 걷는 십자가 행진

의 핵 없는 세상 실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강조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결과를 보면서 한반도 역시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우리들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 위기를 이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고리 원전 1호기는 폐쇄되어야 한다.”는 2012년 환경주일 한국교회 탈핵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78년 가동을 시작했던 고리 1호기가 2008년 수명이 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장을 결정하고 계속 가동하던 중, 지난 2월 9일에 원전 정전사고(블랙아웃)를 맞았던 것이다. IAEA 평가단이 실사를 한다고 해도, 언제 사고가 다시 터질지 모르는 고리 1호기부터 30년 수명이 되는 대로 중단하고 한반도가 핵 너머 생명의 세상이 되도록 적극 힘쓰자고 결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핵이 주는 환상과 유혹, 핵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핵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피폭자는 물론 피폭의 위협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앞장설 것,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재생 가능 자연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에너지 전환운동에 앞장설 것, 최근 남부지역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에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오이원전 재가동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년 3·1절에 한국교회는 ‘핵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핵은 하나님 없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이요,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9:6)’을 거부하는 현대판 선악

과요, 창조세계(창1:1)를 멸절시키는 사망권세(시49:15)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명했다. 환경의 날로 지키는 6월 5일을 기점으로 전국교회들은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실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가라! 핵 너머 생명의 세상으로!”(창3:1-7, 마7:13-14)를 주제로 지난달에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핵 없는 생명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교회적으로 전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녹색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5개의 녹색교회들을 시상했다. ‘환경의 날’ 기간을 통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은 핵 발전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핵폐기물로 인한 생태 파괴와 생명 위협, 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안을 촉구 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자연과 녹색환경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신30:19)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낼 것을 제시하였다.

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평화운동으로 “핵 없이 평화로운 생명세상”을 향하는 모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개인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조그만 관심은 공동체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핵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일, 탈핵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 탈핵에너지 전환운동에 앞장서며, 절전하는 일, 핵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핵 지뢰밭인 동북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생명 연대를 펴는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 핵 발전 학습투어를 다녀와서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글 | 오진아(부산YWCA 간사)



① 아사코하우스



② 마구룬 풍차



③ 원전반대집회 기사가 실린 아사히신문(2012. 06. 10일자)

지난 6월 초, 그리스도인 네트워크(CNFE) 초청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에서 일본 핵 발전 학습투어를 다녀왔다. 후쿠시마 재앙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일본은 평온해보였다.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듯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6월 5일, 도착 첫날 저녁 아오모리에서 의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개업의였는데 이들이 최근에 1,700여명이 참가한 반원전 집회를 조직해 내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원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판단하고 회원들의 병원마다 자가발전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꽤나 고무적인 일이다. 또 지금 일본 국민들은 가정에서 절전 가능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아오모리현 노동조합에서도 이전에는 이러한 운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3.11이후 피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서로 언어는 다르나 그 마음만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6월 7일 방문한 아사코 하우스다.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오오마원전은 현재 27년째 건설 중에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그리고 연료전체를 MOX연료(우라늄50%, 플루토늄50%)로 만들려는 세계최초의 핵단지이지만, 주민의 부지매입반대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곳이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로 중단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중심에 있었던 '아사코' 라는 한 여성의 노력 덕분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아사코 하우스는 중년의 딸이 외롭게 지키고 있었는데, 아사코의 정신은 그 딸이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었다. 길 입구 초입에 감시 초소같은 것이 있었고 철조망이 드리워진 좁은 길을 차로 얼마정도 들어가서야 집이 보였는데, 위험감이 느껴졌다.

원전 인근에 남아 있는 유일하고도 외로운 목조 집 아사코 하우스. 아사코는 오오마 원전 건설회사 직원들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또 이웃주민들이 모두 보상을 받고 떠나감에도 자신이 살아온 땅과 집을, 생명을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아사코의 딸은 자신이 만든 엽서, 아사코이야기 동화책, 에코백 등을 판매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을 꾀꾸이 이어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방문한 기념으로 벚꽃을 기념 식재하였고 방문자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을 벚꽃 앞에 세우고 나왔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다. 처음 우리가 하코다테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를 맞이준 이들은 다름 아닌 재일교포와 캐나다 출신 피터라는 분이였다. 재일교포 권용부 선생은 처음부터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정신대 문제 등에도 운동을 해왔고 고국에 대한 짝사랑이 대단했다.


또한 캐나다인 활동가 피터는 6월 9일 하코다테 공원과 시내에서 개최된 반원전집회를 내내 이끌었는데, 대안에너지 운동의 하나로 풍력발전을 위해 모금과 풍력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원전 1기에 해당하는 풍력은 1,000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마구룬 풍차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의 노력은 헛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훗카이도 낙농대학에서 교수님과 함께 온 마쓰다를 비롯한 대학생들과의 만남은 일본의 탈핵운동의 앞날을 이어갈 세대라는 생각에 안타까움과 호뭇함이 교차했다.

핵발전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핵폐기물과 용융(멜트다운)된 핵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

다는 것을... 그래서 핵에너지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라고도 표현한다. 일본 무츠시에는 건설중인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이 있다. 그곳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럼통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땅에 묻는다고 했다. 그리고 홍보관 직원은 이렇게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방사능과 열기 가득한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저 어이없는 놀라움 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방사능은 여성에게 치명적이다. 생명의 모태를 공격하고 태아와 어린이를 공격한다. 반생명적이다. 핵발전소가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핵 옹호론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다 제쳐두고 핵사고가 일어나면 그 기간을 기늠하지 못할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일본이 과연 원전선진국임을 확인했다. 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과 지역적 차별과 거대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 또한 지금 우리 세대가 편하게 이용하는 이 원전 전기가 후손에게 남길 그 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름이 없기에 더욱 그러했다. 함께 참석했던 아시아생명평화연구원장으로 계신 김용복 박사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탈핵운동은 발효전략이 필요하다고. 누룩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발효시켜서 생명력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3.11후쿠시마 사고는 이제 겨우 1년 지났다. 이번에 한·일 양국이 탈핵운동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우리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사코' 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핵은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지금, 일본정부는 오오이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재가동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부산고리 1호기에 대한 IAEA의 특별점검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수순을 밟는 명목에 지나지 않고 있다. 긴 터널 같은 탈핵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길 바라며, 앞으로 YWCA가 기도하며 지속할 이 운동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 

‘그들’이 ‘우리’가 되는 이곳, 전북하나센터

글 | 김지영(전주YWCA 전북하나센터 간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살림 돌보미 교육"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거주지 적응교육 및 사후지원을 실시하는 곳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전국에 30개의 하나센터가 각 1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전주YWCA에서는 전북하나센터를 2010년 5월 18일에 개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다. 전주YWCA에서는 2001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북한바로알기 교육을 시작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으로 200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받은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짐으로 2010년도는 전북하나센터를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한 달 기준으로 평균 8명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등 지역에 고루 분포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전입하는 날엔 전북하나센터는 그분들을 맞이하러 각 지역으로 마중을 나간다. 하나센터 소개와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지역 협력체계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이 시작된다. 3주 60시간으로 진행되는 초기집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욕구를 알기 위한 초기 면담으로부터 음식만들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핸드폰 익히기, 경제교육, 대중교통이용방법, 외래어 교육, 공중생활예절 등 취업에 필요한 직업준비교육, 인생설계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1:1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생이 1명이 오든 많게는 10명이 오든 하나센터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한다.

지역적응교육 중 전북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북한두만강을 건너 중국 제 3국을 통해 입국하기까지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의료적인 지원은 필수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쇼핑은 지양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신체화장애가 많이 나타난다. 뚜렷하게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있지도 아니하면서 병적 증상을 호소한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하여 보면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 입국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전북하나센터에서는 지역 내 13개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하나센터에서는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1:1 학습지도로부터 부모상담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입국과정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으며 탈북청소년들은 그동안 겪었던 학습 형태와 너무나 다른 남한의 교육 제도 속에서 청소년 뿐만 아닌 부모들 또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학습량의 절대적 부족과 상이한 언어사용 및 문화생활의 차이는 물론 탈북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 부적응 학생들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각기 개별 처방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주YWCA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좋은 사례로 2011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습지원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학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원처와 연계하여 학습비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2011년 4월에 무학이었던 청소년이 초·중·고 검정고시를 이수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다.

전북하나센터가 개소한지 2년이 지났다. 16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전북하나센터를 거쳐 갔으며 현재 28회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하나센터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으며 컴퓨터 및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기도 했다.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대학생이 된 분들도 있으며 대기업에 취업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20개 취득을 목표로 하는 분도 있다. 이렇듯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이 밀려온다. 이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활동이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북하나센터에서는 전북하나센터 개소 2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지역 현 상황과 통일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족여행, 취업여행, 경제교육, 명절음식만들기, 법률상담, 취업지원이동상담, 송년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1:1 멘토링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 사업은 200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기도 하였다.

고향인 북한을 떠나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 제 3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는 그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 아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겪어보지 못해 그 아픔의 크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전북하나센터는 그 아픔을 함께 이야기 한다.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받았을 꺾박과 앞으로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 과정을 전주YWCA 안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밀어주고 보듬어주고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전북하나센터가 되기를 희망한다. 



탈북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즐거운 소통, 행복한 메아리 YWCA 인터넷 방송국 3기 아나운서

한국YWCA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2월 YWCA 인터넷 방송

국(YWBS)을 개국하였다. YWBS는 대학생 아나운서들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생기로 20~30대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한국YWCA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YWBS는 2012년 현재 누적 청취자수 20만 명을 넘긴 방송으로 성장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1월 말부터 시작된 3기 아나운서들의 YWCA 방송은 7월 첫 주로 막을 내린다.



* 낯선 여행지를 내 곳으로 만들다 임지선(월요 아나운서)

오래 전에 해외에서 생활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홀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어느덧 그곳은 나의 속소가 아닌 나의 집이 되었고, 여행지가 아닌 고향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YWCA는 나에게 그런 곳입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홀로서기 방송진행, 아나운서로서 주어진 막중한 의무, 그리고 하루를 담당하는 책임감은 처음에는 버겁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방송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긴장은 편안함이 되고, 설렘은 기분 좋은 떨림으로 변했습니다. 낯설었던 여행지가 이제는 오롯이 내 것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어느새 끝이 보인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또 다른 나의 고향을 찾았다고 막 믿게 되었는데, 다시 나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이 많이 들고, 실수와 어려움의 추억도 묻어나고, 가끔은 힘든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참 행복했던 나의 두 번째 집에 작별을 고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이 자리는 또 좋은 가족들이 채워줄 것임을 알기에 마음 편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YWCA, 사랑합니다!

* YWCA와 대학생의 목소리가 결합될 때의 '변화'를 경험하며 최아정(화요 아나운서)

대학생이 되면서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았습니다. 저의 꿈이 아나운서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YWCA라는 단체에 대학생 아나운서를 뽑는다는 내용 자체가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YWCA 아나운서를 통해 1인 미디어로 직접 원고작성, 송출, 조절 등을 하며 종합적인 것을 터득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원고를 직접 쓰고, 직접 선곡을 하여 송출하는 데 의미가 깊었습니다. 특히 코너를 짜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대학생으로써 대외활동이 아닌 YWCA의 목표와 지향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지를 고민하며 방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생이 다양한 콘텐츠로 꾸려나간다는 데 있어서 Y방송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육 대학생들의 목소리로 YWCA의 한 부분을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의 실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설비(수요 아나운서)

“여러분은 지금 YWBS 수요 설비 아나운서와 0월0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 방송 때마다 했던 멘트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방송 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Y청취자 가족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Y방송의 가장 큰 즐거움이 '소통'이었고, 그래서 방송을 통해 '소통'을 실천하고자 매번 고심했는데 정작 '소통'을 실천한 것은 바로 청취자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제 방송은 청취자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하는 코너들이 많았는데 매번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신 청취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딘가에서 우리 방송에 귀를 기울이실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방송에 열정을 갖게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송이 끝난다고 YWBS와의 인연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YWBS 아나운서'에서 'YWBS 청취자'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화면 밖에서 YWBS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다섯 명의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 다섯 명이 릴레이 하듯 바톤을 주고받으며 이어나간 일주일들. 겨울에서 여름까지, 계절을 거슬러온 그 하루들이 분명 그리워질 겁니다.



○ 왼쪽부터 송해림, 임지선, 최아정, 강현주, 한설비 아나운서

* 만남, 인연 그리고 행복 강현주(목요 아나운서)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 YWBS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된 3기 아나운서의 활동은 제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값진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닌, 청취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요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을 분들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3기 아나운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한 동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Y방송을 행복하고 즐거운 이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힘.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 YWBS 목요방송 DJ 현주였습니다.

* YWBS와 함께한 소소한, 그러나 강렬한 금요일 송해림(금요 아나운서)

1월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매주 금요일이 다가올 무렵에는 늘 YWBS 인터넷 방송을 위한 대본을 썼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즐겨 마시던 커피도 더욱 달콤했고 유난히 집중도 잘 났습니다. 매주 그렇게 쌓여가는 대본들을 보면서 본 방송에 대한 애정 또한 깊어졌는데요, 특히 고정적으로 방송을 들어주셨던 청취자 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들렸는데 재미있어서 빠져버리셨다는 분, 이런 방송이 있는 줄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 계속 보러 오시겠다는 분 등 함께 방송에 몰입해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 많은 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방송을 이끌어주신 주보경 PD님과 YWCA 간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YWBS의 방송이 끝난 앞으로의 금요일은 매우 허전하겠죠. 하지만 그 추억이 더 큰 힘으로 남아 저를 앞으로 또 앞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YWCA 인터넷 방송국 YWBS, 앞으로도 아자아자!

민화협을 통한 북한 지원 이야기

글 | 안정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팀 부장)



○ 민화협을 통하여 안주시로 분유를 보낸 YWCA(2011.12.14)

민화협 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98년 9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소망을 담아 결성되었다. 민화협 운동은 보수와 진보, 중도를 아우르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 단체의 협의체로 다양한 민족 화해사업, 평화통일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막힌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민화협'

작년 초여름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은 춘궁기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에 민화협은 막혀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재개 기자회견” (2011. 5.23)을 갖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후 우리 단체에서는 사업파트너인 북측 민화협과 6월 초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를 가지고 우리정부 및 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드디어 7월 26

일, 8개월간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의 물꼬를 트며 황해북도 사리원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가루 300톤을 시작으로 총 13차에 걸쳐 밀가루 2,500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어 평안남도 안주시에도 분유 4톤과 밀가루 454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종교계, 사회단체, 대북지원단체 등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끌어낸 성과였다.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사실 우리사회는 대북지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원된 물자가 북한의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염려해 지원물자 반출승인 이전에,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분배계획과 모니터링 계획서를 북측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요구했다. 분배 지역과 운송경로, 분배시설, 수용인원, 분배량 등이 담긴 분배계획서, 그리고 물자지원 후 언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지원 이전에 북측으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필요한 일이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북측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은 언성을 높여 가며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많은 양의 식량을 보내주는 데, 같은 동족끼리 얼마 되지 않는 양을 보내주면서 남의 곡간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겁

니까? 분배계획서나 모니터링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가 시킨 겁니까? 우리는 남쪽 당국이 요구하는 것이면 더더욱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우리 단체는 남쪽 국민들의 정서, 후원자들의 입장 등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면 보다 많은 단체와 후원자들이 더 많이 대북지원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는 기존의 관행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일률적인 방식으로 분배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분배지역과 지원물자, 사업파트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정부, 북한의 사업파트너, 참여단체들을 모두 설득하면서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이와 병행해서 총 4차례 걸쳐 분배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원한 밀가루는 지지미, 빵, 국수 등으로 만들어져 애육원,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에 배분되고 있었다. 매일 기록된 분배일지를 통해 ‘받은량, 소비량, 잔여량’ 등을 꼼꼼히 적어놓은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안남도 안주시 어린이들에게 지원된 ‘4톤의 분유’

평안남도 안주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북측과의 협의 또한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북측이 남측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평안남도 안주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6월에 합의를 체결한 이후 5개월간 꾸준히 북측을 설득하고, 우리정부를 설득해 나갔다. 그리고 ‘한국YWCA연합회’가 이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11월말에 북측으로부터 분배계획서를 받아 낼 수 있었고, 지난해 12월 2일, 평안남도 안주시의 어린이들에게 한국 YWCA연합회가 지원한 분유 4톤을 전달 할 수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아쉽게 안주지역 모니터링은 연기되었지만 새로운 사업 대상지역을 합의해 냈다는 점에서 안주지역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만난 북한여성

내가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북한을 방문 했을 때 만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소속의 중년 여성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직총 소속 여성분에게 “3박 4일간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남쪽 대표단을 안내하시면, 가정일은 누가 하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뭐 저는 가정에서 해방이어서 좋습니다. 집에 있는 남자들이 고생이지요! 남자들은 국과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와도 못 찾아 먹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셨다. “저도 3살, 5살 난 꼬마를 집에 두고 와서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라며 말을 잇자 “아이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매일 울겠구나?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최근데,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야 해!” 라며, “세대주(남편)가 집안일은 잘 도와주나?” 라며 친정엄마 같이 소소한 것들을 걱정해주었다. 그런 모습이 참 정겹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면 사진 보여 주자 “나도 한번 안아 보고 싶구나, 다음에 평양에 꼭 데리고 오라” 라며 사랑 한 봉지를 건네주었다. 북한사회도 남한사회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매우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따스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 가며 살아가는 사회이다.

인내와 노력의 결과는 변화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반쪽 남한에서 태어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살수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우리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 는 말을 자주 한다. 요즘 TV에서 “달라졌어요”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고집불통이던 아빠도, 엄마도, 상사도, 아이도 절대 변할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모두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행복하게 어울려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스로 변한 것은 아니다.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그들을 변화하게 한 것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민족화해운동, 평화운동, 통일준비 운동의 노력이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어울려 사는 풍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제공할 것이다.


청소년의 평화, YWCA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리 | 연합회 평화나눔팀

지난 5월 31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2차 YWCA 평화포럼이 열렸다. 제2차 평화포럼부터는 구체적인 YWCA 평화운동에 대한 발제·토론이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로, 학교폭력과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청소년의 평화, YWCA가 할 일은 무엇인가? - 전쟁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임영신 평화운동가가 주제발제를 하였다. 임영신 평화운동가는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만난 아이들, 평화와 대적관계에 있는 전쟁의 피해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처참한 실상을 전하였다. 그 아이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전쟁과 폭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아이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청소년의 평화를 위한 각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회원Y 실무자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생 대표 김채연 양(이화외고 1년)은 오늘의 청소년의 문제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삶의 방향성 상실,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입시제도로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 인권교육, 상담과 멘토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교사 대표 강정훈 선생(안양초지고)은 청소년의 평화를 해치는 환경적 요인을 학교폭력과 남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협동과 나눔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 대중문화의 선정성과 폭력성 지양,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놀이문화활동 개발을 제안하였다. 회원Y 대표 전선영 팀장(고양YWCA)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소년 운동을 펼치는 Y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정의, 평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문화창조, 당사자 소모임 활성화, 교육생협(청소년, 학부모, 교육전문가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해 Y다운 교육철학 구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실험)을 Y에게 제안하였다. 이어 평화포럼 회원Y대표단이 ‘우리 지역의 YWCA 청소년 평화운동, 이렇게 함께 해봐요’란 주제로 지역별 토론회

하였다. YWCA는 우리 사회에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갈등과 폭력이 일상이 된 생활속에서 평화를 구현해내도록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2차 평화포럼 회원Y대표단 지역별 토론회 우리 지역의 YWCA 청소년 평화운동, 이렇게 함께 해봐요

북부 및 경기 지역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찾아내고 만들어요.
- 청소년이 삶의 목적을 찾는 방향을 함께 찾아요.

중부 지역

- 청소년들도 새벽종소리로 영성기움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교육과학부에 중·고교생 운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요.

서부 지역

- 청소년 프로그램에 평화적 감수성을 녹여내도록 해요.
- 입시 경쟁 등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선행학습 방지법 등 법 제정을 위한 Y 노력이 필요해요.

동부 지역

- 청소년들에게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어른의 역할과 책임임을 알려요.
- 지역에선 청소년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주장운동을 펼쳐요.


연합회

-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변화 만들어요.
- 토요일에도 공부해야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애들이 밥먹자에 이어서 애들이 놀자, 찾자, 미안해 등등 시리즈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 5:1-17)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5:17)

1666년 영국 런던에서 대화재로 도시가 전소되어 국왕 찰스 2세는 크리스토퍼 우렌 경에게 성바울 대성전을 위시한 55개의 교회당 재건축을 위촉했다. 어느 날 우렌 경은 공사장에 나가 돌을 깎고 있던 세 명의 석공들에게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물었다. 첫 번째 석공은 “저는 저 벽에 끼어 맞출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석공은 “저는 지금 성바울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는 달랐다. 셋째 석공만이 자신의 일을 높고 원대한 안목에서 바라보았다. 그에게 그 일은 “vocation” 즉 소명이었다. YWCA를 위해 일할 때 이 세 번째 석공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높은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소명의식이란 내가 무언가 높은 곳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거룩한 의식을 말한다. 목수셨던 예수님에게 그것은 그분의 “work”이자 “job”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지만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다음날 고쳐주셨어도 됐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5:17) 하나님이 ‘이제까지’ 즉 ‘오늘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 당신도 지금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분이셨다.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거룩한 손 걷어붙이시고 직접 일하는 분이셨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 하는 것이었다.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겸손히 참여하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일도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경륜 안에서 자신의 일의 의미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YWCA는 ‘소명의 통로’다. 나와 내 지역을 세계와 하나님으로 연결해주는 ‘창문’ 과 같은 존재다.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순간은 지금 우리 안에 숨어 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한국YWCA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 높고 거룩한 소명의식 속에 한국YWCA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높고 크신 안목에서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Revival! 2012 YWCA 활동가 하령회

2012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2012 YWCA 활동가 하령회가 열렸다.

YWCA 중견 활동가 약 50여 명이 모인 이번 하령회는 YWCA 활동가들이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점에서 YWCA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재해석하고, 이 운동에 대한 헌신을 결단케 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회 여자하령회가 1922년 6월 13일부터 12일간 서울 총정로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개최되었고, 이 하령회 마지막 날 YWCA 창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YWCA 창립준비가 하령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90년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아 100주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 개인적·공동체적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정유진(연합회 영성팀 팀장)

한국Y가 90주년을 맞아 100년을 향한 비전을 꿈꾸는 시점에 2012 YWCA 활동가 하령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Y역사에서 하령회는 한국Y 창립준비가 시작된 현장이며, 창립 이후 Y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 하령회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한국Y 100년을 향한 비전과 영성 회복, 사회의식화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한국Y의 운동성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람에서 비롯된 시도라 할 수 있다.

2012년에 중견 활동가들을 깊이 있는 영성으로 만나다라는 것은 설렘이었다. 현재 Y운동의 현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들이 지금 우리의 영성과 운동성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 하령회에서 무엇보다 Y기독교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령회는 성령의 운동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며 제대로 된 사명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이어진 강의와 성서연구는 YWCA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성서적 근거를 확인시키며 깊은 묵상과 나눔으로 인도하였고, 저녁 하늘 비 담은 샘골 기도회에서 새벽기도회로 이어진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운동을 이끄는 영성과 새로운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부으심이 함께 한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단의 예배에서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뜨

겁게 사명자로 세우셨다. 지금 하령회의 모든 시간은 깊은 여운으로 내 안에 역동하는 그 무엇으로 자리잡았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 이뤄낸 기적, 그 기적이 이제 한국Y 영성과 운동성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되길 소망한다. 이번 활동가 하령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하령회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좀 더 깊이 있는 하령회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YWCA 하령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선숙(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

하령회가 있기 전날 다섯 살 난 딸이 40도 가까이 열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 하령회를 가야하나 고민이 되었으나 병원에 다녀와서 한 시간 늦게 출발했다. 가는 내내도 마음이 불편하였다. 그런데 하령회에서의 시간은 아이를 잊어버리고 내용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특히 로마서를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며,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하령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하령회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며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은혜로운 말씀마다 감동의 연속이었고 Y활동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연합회 소식

6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6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6월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장운재 목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월례아침기도회는 전국의 회원Y가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자세한 내용 p.25)

제2차 YWCA 평화포럼



연합회는 5월 31일 제2차 YWCA 평화포럼을 열었다.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가 '청소년의 평화, YWCA가 할 일은 무엇인가?' 란 주제로 주제발제를 하였으며 학생, 교사, 회원Y실무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원Y 대표단 및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YWCA가 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 p.24)

고리원전폐쇄를 위한 생명평화기도회

6월 4일 오후 2시 부산 고리 원전 앞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부산기독교연대'의 주관으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평화 기도회'가 열렸다. 동부, 중부를 비롯한 회원YWCA의 적극적인 참가로, YMCA,

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환경연대, NCCK를 포함하여 총 200명이 모였으며, 핵은 하나님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일본 핵발전소 학습 투어



'일본의 원전체제를 묻는 그리스도인 연대'의 주관으로 6월 5일~10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핵발전소 학습 투어가 있었다. 일본 아오모리 현과 하코다테의 원전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 원전 반대 운동가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의 참여단체들과 함께 오진아(부산YWCA간사), 최수산나(YWCA연합회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일본 방문 이후 탈원전 국제교류 하코다테 액션 참가자들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35p 참조)

2012년 YWCA 활동가 하령회



2012년 YWCA 활동가 하령회가 6월 19일~20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개최되었다. 회원Y와 연합회 5년~10년 활동한 중견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하령회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이해, 개회예배에서 강교자 전 연합회 회장의 설교 말씀, 이훈삼 목사의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강의, 개인묵상과 김명희 목사의 이사야서,

로마서 성서연구와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장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 시간에 이해경 목포Y 전 사무총장, 신선 연합회 영성팀 위원(여성학자협의회 공동대표)가 신안인으로 Y 활동가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 영성훈련교재 새벽종소리로 공동예배를 드리고, 성서연구 묵상과 결단의 예배로 마쳤다. YWCA 90년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고, YWCA의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12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평화운동가의 도전과 평화 순례의 의미를 담아 2012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 협의회가 6월 20일~21일까지 제주절물휴양림에서 개최되었다. 한국YWCA 사무총장 4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제주YWCA 회관에서 시작된 개회예배에 이어 박찬식 전 제주대 교수의 '평화의 섬, 제주 여성의 역사',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의 '경쟁마을과 평화' 강연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 새벽부터 한라산을 도전하며 활동가로서의 의지를 다졌으며, 문효은 다음세대재단 대표의 'IT환경에서의 시민운동가의 과제'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의 새로운 소통방법을 모색하였다. 셋째 날에는 서귀포YWCA를 방문하여 폐회예배로 마무리하였다. 평화의 섬 제주 순례를 통해 평화운동에 대한 깊이를 확장하고, 섬과 공동체 나눔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동정

• 김은숙 익산YWCA 사무총장 취임(2012.6.1)

• YWCA 홈페이지
www.ywca.or.kr

• YWCA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 북부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서울YWCA 봉천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복지관 대강당에서 5월 9일에 진행되었다. 동영상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웃고 울었던 20년을 돌아보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표창하였다.

봉천복지관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활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는데,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자조모임 '반베' 회원들이 전통춤을 선보였고 복지관 직원들의 깜짝 공연은 웃음을 선사했다.

● 청소년부 Y-틴 · 대학Y 연합 인준식

서울Y 청소년부에서는 Y-틴 회원과 대학Y 회원 300여 명과 함께 2012년 Y-틴 · 대학Y 연합 인준식을 5월 12일에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서울Y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회원에게 표창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Y-틴 동아리를 잘 이끌어준 선생님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어린이 클럽 인준식

강릉Y는 6월 2일 어린이회원과 어머니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Y 클럽 인준식을 가졌다. 1부 예배와 2부 인준식(인준장 수여와 뽀지 달아주기, 레크레이션), 3부는 한국Y 90주년을 기념하여 생명나무심기 행사로 회관주변에 장미나무를 심었다. 생명나무와 함께 어린이 회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한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씹크머니데이



동해Y는 5월 25일 남호초등학교 강당에서 1학년 - 3학년 대상 씹크머니데이를 진행하였다. 평소 씹크머니 교육으로 금융 지식을 쌓은 아이들이 놀이와 배움을 통해 집중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1부에서는 일주일간 교육 받은 내용으로 O,X 퀴즈와 도전골든벨이 진행되었고, 2부 프로그램에서는 알뜰시장(아나바다 장터)을 열었다.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성인지적 관점으로 마을과 소통하다' 사업

고양Y는 고양시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여성주의 인문학강좌를 시작하였다. 문은희 한국알트루사 소장, 여성학자 박혜란의 강의를 있었으며, 추후 성인지예산과 분석을 위한 워크숍과 소모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성남Y는 우리사회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의 확산을 위해 6월 1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연계하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다문화가족 부부 특강

수원Y는 5월 12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강생과 부부 12쌍이 참석한 가운데 '부부 특강'을 열었다. 부부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친밀감 향상을 돕고자 한 이번 특강은 반태섭(한국치유문화원)원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안산Y는 6월 1일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Y 최양님 회장을 초청, 회원모집운동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부서별로 회원증모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노래 개사로 부르는 대회를 진행하였다. 6월 28일까지 한 달 간 회원증모운동을 펼치며, 생명세상을 만드는 YWCA 운동에 많은 회원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의정부 YWCA 김정은 간사

● 돌보미 그린서비스 녹색교육

의정부Y는 2012년, 산모 · 살림 · 아기돌보미들이 구인가정에서의 환경사랑 실천을 위해 앞장선다. 합성세제를 최소화하고 EM을 활용한 청소와, 에너지절약, 안전한 먹거리 조리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그린서비스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6월 12일까지 기존 활동 돌보미와 신규돌보미를 대상으로 '돌보미 그린서비스 녹색교육'을 진행하였다.

●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집 평화기자단

수원Y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평화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총남여중 3학년 12명으로 구성된 평화기자단은 북한바로알기를 통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또래 청소년들의 의식을 깨우는 메신저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통한 기자전문교육을 받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을 조화롭게 다루는 교육을 받고 있다. 향후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새터민 인터뷰 등 다양한 신문제작 활동으로 평화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 중부지역 Y-틴 중점운동(학교폭력예방) 캠페인



6월 6일 대전, 조치원, 청주, 논산 중부지역 4개 지역 Y-틴 회원 50명이 2012년 전국Y-틴 중점운동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전 거리에 모였다. 학교폭력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였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충주YWCA 환경의 날 충주시장 단체표창

충주Y는 6.5 환경의 날 행사에서 충주시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충주Y는 향후에도 충주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2012년 충주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충주Y 가정폭력상담소 주관 9월 6일까지 충주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 충주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다. 초등학교 4-6학년 중 1개 반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 500m 내외를 조사하여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지도에 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여성의 쉼터 "우리들의 외출" 나들이

논산Y 여성의 쉼터는 6월 4일 입소여성, 퇴소여성,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대천해수욕장과 개화예술공원으로 사색을 위한 외출을 하였다. 입소자들을 비롯해 퇴소여성, 다문화 여성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해하는 시간과,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세종Y Y-틴 청소년들은 6월 3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Y-틴 홍보물도 함께 배포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Y-틴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해주어 Y-틴 평화운동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재능나눔프로그램 "통키타에 희망을 심고~"개강식

천안Y는 5월31일 "통키타에 희망을 심고~" 개강식이 있었다. 천안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 7명을 대상으로 통키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재능기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동기부여 그리고 악기와 음악을 통한 자활을 도우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의 장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 서부

광주 YWCA 임서하 간사

● 제18회 오월Y시민포럼 '핵없는 평화세상을 위하여'

광주Y는 5월 16일 '핵없는 평화세상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제 18회 <오월Y시민포럼>을 열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인 김익중 교수 강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노후된 원전의 실상을 알리고 핵발전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 '오월 평화순례길' 을 걷다



광주Y는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Y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광주의 '오월 평화순례길' 행사를 가졌다. 5·18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민중항쟁 사적지를 돌아본 후 민중항쟁 32주년 기념 연극 '미중'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직업능력개발교육

남원Y는 6월 4일, 11일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전략',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강의를 열었다. 이번 직업능력개발교육에서는 결혼여성 및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았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어린이 성문화체험전

남원Y는 6월 26일~29일 어린이 성문화체험전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번 체험전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자료와 체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목포YWCA 황정원 팀장

● 청소년지원센터 개원 20주년 기념 포럼 '폭력없는 건강한 청소년을 말하다'



전주Y 청소년지원센터는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5월 31일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교폭력 대안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 포럼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서, 교육청 및 학교, 상담기관의 역할 및 학교폭력 대안,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목포YWCA 창립65주년 기념행사 및 사무총장 이·취임식



목포YWCA 창립65주년 기념행사 및 사무총장 이·취임식이 400여 명의 객석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봉사상 시상과 감사패 전달, 장학금 수여의 순서로 열렸다. 또한 6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으로 "어린이 도서관 개관"과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 1004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해경 전 사무총장이 이임하였고, 김은숙 신임사무총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순천YWCA 김정민 팀장

● 다래교실, 고인돌공원 가다

순천Y는 6월 6일, 9일 다래교실 학생들과 함께 탐방학습을 다녀왔다. 씨티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YWCA 다래교실(순천)은 방과 후 학습지원과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인돌공원과 송광사를 탐방하고 보리수 따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2012년 청소년문화존과 함께하는 아나바다나눔장터

2004년부터 약 8년 간 가족아나바다나눔장터를 운영한 여수Y는 청소년문화존과 함께 기획하여, 주5일제 전면실시를 맞이한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함께 자원순환 실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터 수익금의 10% 기부를 유도하여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 민주시민의식향상프로그램 나는야 풀뿌리꼬마지킴이



제주Y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5월 26일 초등학교민주시민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나는야, 풀뿌리꼬마지킴이"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6주간의 프로그램 진행과 1주간의 수료식으로 진행되며,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능동적 민주시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달서지역자활센터 모시한복에 깃든 사랑나눔 전달식

대구Y 달서지역자활센터는 6월 27일 달서구청 행복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모시한복에 깃든 사랑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흥패션리폼사업단에서 제작한 모시한복을 달서구에 거주하는 홀로어르신 15분께 전달하였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행복한 사랑의 빵 나누기



포항Y Y-틴은 6월 9일, 23일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빵을 만들어 배달하는 '행복한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 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께 정기적으로 영양 빵을 만들어 배달함으로써, 어르신께는 영양상태 개선의 효과와 청소년들에게는 이웃사랑실천 및 봉사정신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 김해YWCA 창립 21주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3주년 기념예배

김해Y는 6월 11일 김해YWCA 창립 21주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3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장신교회 김용수 목사의 "그 위대한 이름"이란 말씀을 통해 YWCA 목적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그 목적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김해Y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 여성친화도시 탐방 프로젝트

김해Y는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여성친화도시 탐방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인제대 이우배 교수의 "행복한 가족도시 김해" 만들기를 시작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의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 친화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마산 YWCA 이애라 팀장

● **양성평등 캠퍼스—공평한 시선**

마산Y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경남대학교 YWCA동아리 터울거리와 함께 양성평등 캠퍼스—공평한 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4행시 짓기 등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퍼스 양성평등 운동을 전개함으로 공정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다문화 이해교육 및 법문화교육 가족캠프**

사천Y는 5월 19일 다문화 이해교육 및 법문화 교육 가족캠프를 열었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여행과 가족 프로그램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유대감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 **제 5회 여성들의 이야기 터**

양산Y는 6월 29일 제5회 여성들의 이야기 터를 개최하였다. 여성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증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진주 YWCA 최애진 간사

● **진주YWCA 34주년 창립기념예배**

진주Y는 6월 18일 진주Y 대강당에서 진주YWCA 창립 3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념예배, 저녁식사, 축하공연 등의 내용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되었다.

진해 YWCA 박은미 간사

● **2012년 부부의 날 -진해부부축제**

진해Y는 5월 19일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후원으로 "진해부부축제"를 열었다. 부부 30쌍이 참석한 이 날 개회식 및 축하한마당, 각종 공모시상식이 있었다. 부부편지 두 쌍, 부부담은꼴사 진 콘테스트 네 쌍을 시상하였다.

창원 YWCA 황은진 간사

● **청소년이 만드는 평화, 나눔, 희망 보고서 희열-청소년플리마켓(벼룩시장)**

창원Y는 5월 26일 Y-틴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 "희열-청소년플리마켓"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운동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희열-청소년플리마켓의 기부액 164,200원은 연합회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운동과 지역 사회 평화운동을 위해 사용된다.

“탈원전 국제교류
하코다테 액션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

6월 5일에 열린 <시모키타 핵 지역 스터디 투어>에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CNWFN), 일본의 <원전체제를 따지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CNFE)와 일본 각지에서 국적, 민족, 세대, 종교, 입장의 차이를 뛰어 넘어 각자의 과제를 갖고 참가하였으며, 일본 원전 대책이 얼마나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목격하였다.

특히 일본 오오마 지역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난립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공사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괴물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 바로 옆에, 원전 건설에 반대하며 모녀가 세운 작은 목조의 '아사코 하우스'를 본 순간, 한사람의 인간의 양심, 신념이 얼마나 강하고 신성한 것인지를 알고 감동받았으며, 원전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자는 세계의 양심적인 시민은 후쿠시마 피해에 마음 아파하며, 일본이 하루빨리 원전 폐지의 결단을 내릴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이 21기의 원전을 갖고 있는 세계제일의 원전 밀집국이라는 것과, 한국 정부가 원전을 증설하고 무모하게도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대도시인 부산 근처 고리에 30년의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한국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재해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원전 의존적인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국내외 활발한 운동을 통해 세계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예언자적 소명과 강한 역사적 사명감으로 '핵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양립'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2012년 3월 11일에 전 세계에 발표한 것을 확인하였다.

홋카이도의 토마리 원전, 하마오카 원전, 겐카이 원전, 로카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반대해온 참가자들은, 이 시설들이 활동적이고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전 관련시설 설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확신으로 끈질기게 투쟁해온 시민운동과 법정 투쟁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투어 참가자들과 하코다테, 삿포르, 아오모리로부터 <탈원전 국제교류 하코다테 액션>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은 지역별 개별운동과 협력활동을 하는 동시에, 국제연대에 각국의 원전 폐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아래의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6·9 공동선언문을 오늘 여기, 일본 그리스도교단 하코다테 치토세 교회에서 채택하고, 세계에 메시지를 선언한다.

1. 우리는, '국민생활을 지키기 위해' 오오마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공언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금씩 재가동을 실행하려는 일본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 또한 토마리, 하마오카, 겐카이를 비롯해 전국의 원전 재가동 계획 중단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로카쇼의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연료로 재사용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전후 일본은 경제제일주의로 지역 간, 일반 시민 간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차별에 근거하여 지역민들의 안전을 특성으로 하는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위에 세운 '원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3. 우리는 핵무기 제조의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사용한 모스(MOX) 연료의 완전 장진에 따른 전대미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내최대 규모의 오오마 원전건설 공장 재개를 반대하는 하코다테 시장과 시민의 끈질긴 운동을 지지한다.
4. 우리는 30년의 수명을 다한 한국의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힘든 운동을 전개하고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의 시민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5.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의 국가들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반대한다. 원전의 수출과 사용 후 핵연료를 몽골 등 해외로 넘기려는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2012년 6월 9일
 <탈원전 국제교류 하코다테 액션> 참가자 일동 | 세계교회협의회(WCC)
 | 한국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CNWFN)
 | 일본의 <원전체제를 따지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CNFE) 외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